

무안군 “군공항 이전 6자회담 성실히 참여 중”

郡, 참여 소극적 ‘사실 아니다’ 반박

“근거없는 주장으로 혼신 초래 안돼”

군민 의견 수렴...협의 과정 투명 공개

무안군이 일부에서 제기한 ‘군 공항 이전 6자 회담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무안군은 19일 “정부 제안 이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TF 주도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지역의 미래 발전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 정부 협의체 참여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며 지역 여론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전남도와 광주시 일각에서 ‘무안군이 정부의 6자회담 제안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대통령실 타운홀 미팅 다음날 ‘군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무안군은 6자 TF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지난 9월29일 밝힌 무안군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재천명했다. 또한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실 주제로 한 3차례 실무회담에도 성실히 임해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행정 구역 갈등이 아니라 지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며 “감정적 논쟁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안군은 향후에도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며, 군민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회담은 대통령실 직속 협의체로,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한다. 현재는 대통령실 주도로 협의가 진행중으로 당초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시급한 국경현안 해결과 혼란한 국제정세 등이 맞물려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또한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전남 간 발원 공방으로 논의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무안군이 이미 정부 실무 협의에 참여 중인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도 대통령실 주관 6자 TF 회의 개최를 위해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전 논의가 정치적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상생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6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군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은 항상 군민 행복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진도군이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생업소 영업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음식점 친절 서비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친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불친절 음식점 체질 개선 나선다

위생업소 300곳 참석 ‘친절 결의대회’

친절 서비스교육·거리행진 캠페인도

진도군이 일부 음식점의 불친절 논란 이후 관광 이미지 회복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진도 지역 음식점의 불친절 사례가 확산되며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군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음식점 친절 서비스교육 및 결의대회’를 열고 제발 방지와 친절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서 관내 위생업소 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음식점, 친절로 다시 태어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관광도시로서의 진도 이미지 제고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행사는 ▲친절 서비스교육 ▲음식문화 개선 및 친절 다짐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캠페인) 순으로 열렸다. 참석한 영업주들은 ‘친절 실천’과 ‘정결한 위생 관리’를 다짐하며, 음식점의 품격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을 약속했다.

특히 행사 후 이어진 거리 행진에서는 참가자들이 “불친절 NO! 친절은 YES!”, “맛도 서비스도 진심 100%”, “감동 서비스로 다시 찾는 진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역사회 전반에 친절 실천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도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음식점의 서비스 의식 개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은 위생등급제 확대, 종사자 대상 서비스교육 정례화,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결의대회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진도 전역에 ‘친절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나주시, 세계 골프대회 현장서 ‘나주배’ 홍보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41개국 생중계...브랜드 가치 ‘쑏’

나주시가 세계 정상급 골프 대회인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나주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홍보에 나섰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는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전 세계 골프 팬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나주배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대회는 BMW코리아가 주관하며, 국내외 241개국에 중계되는 만큼 나주배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톱랭커 78명이 출전했고, 대회 기간 약 5만~6만명의 갤러리가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선수 전용 식당에 나주배를 후원해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상큼하고 아삭한 맛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현장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상구(오른쪽 세 번째) 나주시 부시장이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나주배 홍보를 함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특히 이번 홍보는 ‘세계가 인정하는 과일, 나주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소비층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전 세계 골프 팬들과

선수들이 현장에서 나주배를 맛보며 자연스럽게 나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홍보관 운영이 나주배 수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

20~31일...직접 반영 예정

목포시의회는 19일 “다음 달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감사권 중

하나로,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 법

위에서 목포시 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전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해오고 있다.

시민 의견 접수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간 진행된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개선이 필요한 정책, 예산 낭비, 비리·부도덕 행정 등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출된 시민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실제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이미 감사가 완료된 사항, 악의적이거나 인신 공격성 내용은 제외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지역 기업과 취약계층 가스안전망 강화

郡-가스안전공사-MC에너지 협약

2027년까지 1억원 투입·생활 개선

영암군이 취약계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MC에너지㈜와 함께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의 안전 강화와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스 노후 배관 교체 ▲누설 차단장치 설치 등 가스보급시설 개선 ▲냉장고·세탁기 보급 ▲단열 창호 시공·보강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이 포함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세 기관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의 생활안전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C에너지㈜는 1982년 창립 이후 전남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기기 지원, 경로당·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및 섬급 기탁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제29회 노인의 날’ 성황리 개최

1천500여명 어르신 참석

공연·시상식 등 ‘웃음꽃’

강진군은 19일 “지난 16일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노인의 날’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9번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높이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1천500여명이 참석해 오랜만에 함께 웃고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과 더불어 흥겨운 장구나타·민요 공연, 군동 시목경로당의 댄스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지역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어르신들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전남지사 표창은 ▲모범부부 윤건호·황희순(강진군) ▲모범노인 박용기(신전면) ▲노인복지기여자 김시중(작천면)·이효천(성전면)씨에게 돌아갔다. 군수 표창으로는 정숙원(83·여)씨 등 11명이 모범노인상, 김동순(78·여)씨 등 11명이 노인복지기여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노인회장상은 ▲최순남(76·여·군동면) ▲백학영(84·남·작천면)씨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상은 ▲안복순(83·여·신전면)씨가 각각 수상했다.

황호영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회장은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잇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연장

민생쿠폰 기간과 혼동...31일까지

영광군은 19일 “전 군민에게 50만원(2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2차 지원금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만9천230명에게 총 246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1차 때보다 미신청자가 많아 군은 신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출타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9월22일~10월31일) 신청 기간과 혼동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놓친 군민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총 5만540명으로, 이 중 미신청자가 연장 신청 대상이다.

지급 기종일(2024년 12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날(12월28일) 이후 전출·사망·말소·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그리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김동규 기자